

폐광지역을 통과하는 철도터널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bility Analysis Technique of the Railroad Tunnel passing through the Abandoned Mining Area

신현곤^{*} 배준현^{**} 김무일^{***} 이준석^{****}
Shin, Hyeon-Kon, Bae, Jun-Hyun, Kim, Moo-Il, Lee, Jun-Seok

ABSTRACT

Several possibilities on the stability analysis of the railroad tunnels passing through the abandoned mining area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Previous works on the influence zone due to cavities are investigated to study the effect of the safety deterioration near the cavities which are normally unknown to the engineers. Additional works on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influential zone are also performed in 3-D space. The proximity of railroad tunnel and unexpected cavities is critical to influence the stability of railroad tunnel under construction. Furthermore,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derground condition like joint and faults should be significantly controlled under both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1. 서론

기존 석탄광 채굴작업으로 인한 지표면의 침하나 폐광 붕락등의 현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강방안도 국내외적으로 널리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석탄광 채굴작업으로 인한 지하공동의 규모는 실제 채굴량과는 다른 경우가 간혹 있으며 채굴적 도면 또한 실제상황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하 공동 인근으로 토복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탄광 인근을 통과하여 굴착예정인 철도터널의 시공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폐광등에 의한 철도 터널의 영향권을 분석하였고 실제 수치해석 과정에서 안전을 개념을 도입하여 터널의 안정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도터널과 인접하여 임의의 폐광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미리 점검하였다.

2. 이론적 고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폐광 및 기타 공동이 본선 터널 시공시 미처는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해 파괴

*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공학석사, 정회원

** 국립경찰 주식회사, 사원, 정회원

***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정회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정회원

역학을 이용한 고전적인 방법과 탄성론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응력의 변화추이를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고전적인 방법은 Hu & Kemeny^[1] 이 과파역학에 기초로 하여 폐강과 주변 절리의 상호작용 및 충진 (backfill) 의 영향권을 제시하였는데 폐강으로 인해 주변 절리의 응력이 2.4배 정도 증가되었다. 또한, 탄성론에 입각한 평형방정식 및 적합방정식으로부터 적절한 경계조건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식들을 유도할 수 있다. 즉,

$$\sigma_r = \frac{1}{2} P_z \left\{ (1+k)(1-2\frac{a^2}{r^2}) + (1-k)(1-4\frac{a^2}{r^2}+3\frac{a^4}{r^4}) \cos 2\theta \right\}$$

$$\sigma_\theta = \frac{1}{2} P_z \left\{ (1+k)(1+2\frac{\rho^2}{\lambda^2}) - (1-k)(1+3\frac{\rho^4}{\lambda^4}) \cos 2\theta \right\}$$

$$\tau_{r\theta} = \frac{1}{2} P_z \left\{ -(1-k)(1+2\frac{a^2}{r^2} - 3\frac{a^4}{r^4}) \sin 2\theta \right\}$$

여기서, σ_1 , σ_0 및 T_{eff} 는 각각 임의의 지점의 반경방향, 원주방향 및 전단 응력을 의미하고 k 는 초기 수직 지압에 대한 초기 수평방향 지압의 비, 즉 토압계수를 나타낸다. (Hoek & Brown^[3]에 의하면 원형 티널의 경우, 티널 중심으로부터 반경의 약 3배를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탄성론의 경우 티널의 형상이 원형이고 외부 하중이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임의의 형상 및 현실적인 초기 지압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티널의 영향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침하이론을 기초로 한 경험적 방법에 의해 영향권을 설정하였는데, 폐광 체굴고의 3배를 그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3. 수치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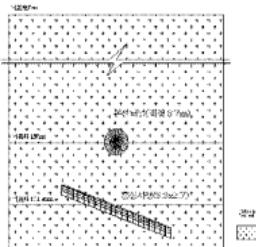
폐광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폐광이 영향권에 인접하고 있는 노선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대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본선 터널에 대한 공동 또는 폐광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3차원 해석을 통하여 폐광의 영향권을 분석하기 위하여 암반 강도/응력비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3차원 FLAC 프로그램 (Itasca^[14]) 의 FISH 함수를 적용하였다.

3.1 해석모형 및 수치해석 모델링

(1) 해석 모형

대상 모형에 대한 탄소성 해석은 Itasca Consulting Group에서 개발한 유한차분해석 수치프로그램인 3차원 프로그램 FLAC-3D (3 Dimensional Fast Lagrangian Analysis of Continua)를 사용하여 그림1. 니님의 지층노

그림 1. 디날의 지증노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직경 8.7m 원형터널을 가정하였으며, 암반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Mohr-Coulomb 향속기준을 사용하여 원자반을 모형화하였다. 또한 터널 중심부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150m로 그림 1의 지질도와 같이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터널 해석에 사용된 지

만물설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해석에 사용된 지반물성계

시급	단위개수 (t/m ²)	포액지밀도 (t/m ³)	마찰각 (°)	점차이 (t/m ²)	단위용량 (t/m ³)	축압 개수	면적간두 (t/m ²)
검암	700,000	0.24	40	100	2.65	1.0	60

(2) 수직래에 모델링

설계 대상구조물의 굴착단계별 해석과정은 원지반의 초기 지압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충심사생을 굴착하여 지압의 평행상태를 계산한 후 몬터너리를 6m씩 굴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의 단계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단계별 굴착시 천재 서풍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6m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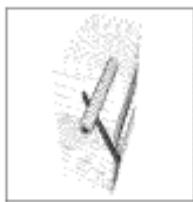


그림 2. 몬터너리 및 흙설타령 모형

마위, 해석 모형의 경계부분이 흥심사생 및 본선터널의 굴착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각 직경의 3D 이상으로 확장하여 폭은 40m, 길이방향은 60m까지 절점망을 구성하였으며 높이는 수평시간을 고려하여 70m 구간으로 하고 상부한반의 하중은 초기에 반영하도록 절점망을 구성하였다. 충심사생과 본선터널의 모델은 그림2와 같으며 앞서 세출한 바와 같이 폐소 인식방향의 간격은 29.81m이고 흥심사생의 경사각은 -20°, 본선터널과의 교차각은 54°로 설계 조건에 맞도록 모델링하였다. 경계조건은 하부인 Y, Z방향으로 구속하였으며 측압계수 1.0을 사용하여 X 및 Y방향으로 구속압을 제자하였다. 또한 설계 본선 터널에 사용되는 톡블트, 쟁크리트 혹은 라이닝재는 해석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3.2 해석 결과

제작에 의한 터널의 영향권 분석을 위하여 FLAC-3D 프로그램 분석결과를 수록하였다. 충심사생의 굴착에 의한 초기지압의 수령도를 분석한 후 몬터너리의 영향권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몬터너리의 서풍단계별 폐생에 의한 영향권 및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흥심사생 굴착단계

원지반에 초기지압을 가한 후 초기지압상태에서 흥심사생을 일관적으로 굴착하여 지반총력의 수령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LAC 3D의 FISH 함수를 사용하여 FLAC 3D 내에서 제작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경우, 굴착에 의해 제작된 grid 망을 제외하고 각 grid의 폐쇄, 폐소 주용력과 내부 애광각, 침착력 및 현장 강도로부터 Mohr-Coulomb 방식하수에 상응하는 암반 강도를 계산하였다. 한편, 그림 3의 외대 주용력도를 살펴보면 흥심사생의 굴착면에서 암축총력이 초기지압 (477t/m²)보다 약 150t/m² 정도 감소하는 짐작을 보이며 그림 4의 폐소 주용력도의 경우, 흥심사생의 굴착면에서 암축총력이 초기지압보다 약 350t/m²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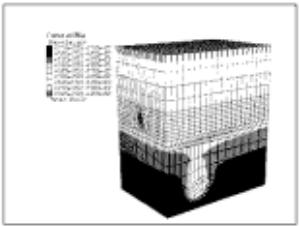


그림3. 최대 주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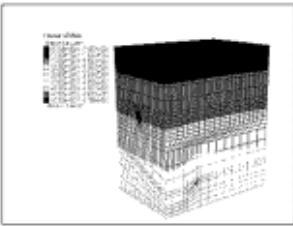


그림4. 최소 주동력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지반의 경도와 흥심사개 굴착에 따른 실제 응력상태와의 비(경도/응력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비율(Safty factor)이 절제적으로 1.0 이상이므로 흥심사개의 굴착에 의한 영향권이 본선타널의 굴착진행 영역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작업중에 있는 흥심사개는 본선타널의 안전에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본선타널 굴착단계

본선타널은 6m씩 총 10단계에 걸쳐 60m의 연장을 굳진한 것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단계별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굴착단계별로 강도/응력비를 계산한 결과 본선타널 굴착면에서만 1.0보다 작게 나타나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모두 1.0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폐개에 의한 영향권 분석에 있어서 흥심사개는 본선타널 굴착지 영향권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사방으로 인한 폐해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개과 연적거리가 가장 근접한 부근(본 모델의 중앙부)의 본선타널 원단부에 연적저점량을 계산한 결과 3.59mm로 나타났다.

4. 영향권 내의 폐개모양의 안정성 고찰

본선타널 굴착시 폐개가 출현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선타널과 연접한 가상의 폐개를 고려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상의 연접 폐개에 의한 본선타널의 영향권을 분석한 후 폐개의 몇체옹으로 인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폐개의 존재는 본선타널의 중성점에서 10m 이격되어 있고 서로 90°로 통과하는 것, 본선 터널의 직경이 8.7m인 점을 고려하여 가장 근접하게 통과하는 폐개으로 가정하였다. 지반의 물성 및 본선타널의 둘과깊이는 앞에서



그림5. 영향권 내의 폐개 모델링

사용된 물성 및 지표밀 150m 풍파노선을 설정하였다. 해석모델은 40m 폭과 40m 너비의 3차원 구조체로 정하였으며 높이는 40m로 보델링을 하였다. 겉위방은 9,280개의 zone과 10,122개의 grid point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앞의 그림5와 같이 나타내었다. 먼저 초기 지압 상태를 설정하고 폐개의 굴착에 의한 지반내 수립도를 분석하였으며, 본선타널의 굴착단계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선타널 단

개별굴착은 굴착 및 헌지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4m로 굴착을 하다가 폐광에 균일하여서는 2m씩 굴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센터널의 3D내에 균일한 폐광의 해석결과를 그림6,7에 나타내었다. 주용력도를 살펴보면 폐광 극복에 의하여 본센터널 위치의 연직부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도/용력비를 계산하면 그림8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1.0이상의 값으로 폐광의 굴착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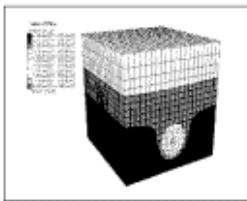


그림6.폐광굴착에 의한 최대수용력도
용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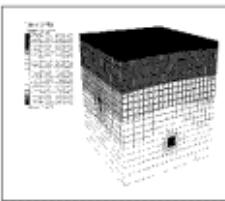


그림7.폐광굴착에 의한 최소수용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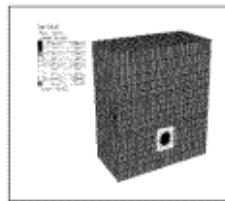


그림8.폐광굴착에 의한 강도/용력비

특히 본센터널을 완전굴착한 후의 결과에 의하면 강도/용력비가 1.0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림9와 같이 폐광과 본센터널 사이로 영향권이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본센터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단계별 본센터널 굴착방향으로 20m 중앙부의 크라운부의 연직변위를 보면 그림10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폐광위치를 통과할 경우 가장 많은 층정이 발생하며 층증면위는 4.134mm로 나타났다. 면위의 크기만을 검토한다면 구조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흥심사개의 해석결과(3.59mm)보다 약 15%이상 연직체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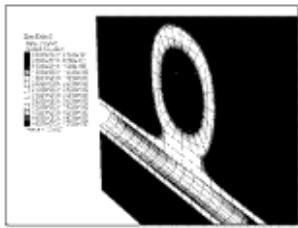


그림9.최종굴착 후의 강도/용력비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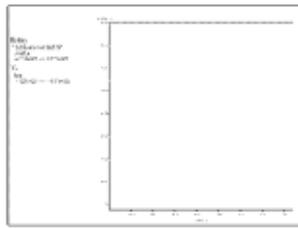


그림10.타널 선단부의 연직재정 양상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폐광 주위를 통과하여 시공 예정인 철도 타널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광에 의한 영향권을 파괴역학, 관성론, 경현적 방법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경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경현적 방법에 의한 폐광의 영향권 산정법을 기초로 신센터널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수 있는 인자를 파악하였다.
- (2) 수치해석 결과 폐광 영향권에 연접하고 있는 노선 중 나타난 폐광과의 교차부에서는 굳화단계별 강도/용력비가 1.0이상으로 폐광은 본센터널 굴착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3) 설계상황을 가정한 임의의 인접내 폐광의 영향권 분석에 있어서는 영향권 밖의 경우에 비하여 약 15%이상의 연직 저점률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선타일과 폐광의 교차부에서의 안정성 검토는 지반경수와 암반의 절리상태 및 폐광과의 인접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요한다.

참고문헌

-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5b), 철암지역 지반침하 보강공사 실시설계보고서.
- [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6), 고사리지역 지반안전성조사.
- [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5a), 지하체굴에 따른 지반안정성평가 및 대책 연구
- [4] 철도청 (1999),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기본설계 기본설계보고서”.